

# 티벳 자연·인문 환경의 지리적 특성\*

文 津 詰

- I. 도입
- II.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 III. 인구 및 취락의 구조와 분포
- IV. 요약 및 결론

## I. 도입

티벳, 즉 중국공식 행정구역 명칭인 西藏自治區(이하 西藏)는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 가운데 하나이다. 西藏이 중국의 여러 성·자치구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에 부가하여 중국 내에서 西藏이 갖는 성격은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혹은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또한 西藏에 대해 갖는 중국 정부의 시각과 관심 또한 특별하다. 이러한 西藏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지역의 '이심성'과 '차별성'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심성은 지리적 입지의 원격성(geographic locational remoteness)을 일컫고 차별성은 그에 따른 사회공간적 특이성(socio-spatial distinctiveness)이다.

西藏은 중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지역으로 취급된다. 西藏은 우선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중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먼 변방지역으로 주요 도시에서 西藏에 이르는 교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 이심성, 원격성은 또한 사회공간적 특이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자연환경, 문화, 종교, 민족, 제도 등에서 西藏만의 특성으로 고착되었다. 이 같은 이심성과 차별성은 정치적으로도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마찬가지로 작용했는데, 그 같은 과정은 西藏의 성립, 1951년의 이른바 '和平解放'과 1959년의 '民主改革',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북경정부와 西藏간의 갈등 또한 이심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西藏은 극도로 열악한 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제발달 정도가 낮은 수준인데 이는 다른 소수민족자치구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사회문화적 특징 역시 중앙정부 혹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극도의 이심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결국 西藏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은 이 지역의 갖는 고유한 지역성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발달, 고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西藏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의 다양한 접근 속에는 지역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같은 지역 이해는 기초적인 지리적 환경의 이해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西藏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결과와 그 특징에 관한 논의들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배태하는 지역적인 구조들, 즉 자연환경과 인문적 환경의 기초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해는 西藏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기초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西藏이 갖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지역성의 기초적인 구명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역성 구명이란 지리학의 일반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인 지역지 도식<sup>1)</sup>의 기본적 사고에 근거하여 西藏의 지역성을 구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칫 사회경제적 논의에서 사상되기 쉬운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전망이나 지역 현안의 심층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도식의 기본적 사고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지역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西藏의 지리적 특성을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인구 및 취락체제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들 항목 외에도 지역성 구명을 위한 지리적 특성 파악에는 많은 항목들이 추가될 수

1) 지리적 도식이란 한 단위 지역의 '지역지'(=지리, 지역연구)의 서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안된 항목들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기후, 토양, 식생, 인구, 산업, 취락 등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각 항목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닌 다음 항목들의 설명과 이해에 필수적인 것으로 연쇄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도식을 모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지리적 도식의 기본적 사고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西藏의 전문적 지역지가 아니고, 또한 지면의 제약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지리적 특성이란 점에서 가능한 한 정치적, 경제적 의미는 생략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이해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는 중국에서 발행된 책자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반적으로 西藏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구득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西藏의 전반적인 자료의 부족에 부가하여 지리적 기초에 근거한 자료는 더욱 부족하다. 이 점은 西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가 역사, 종교 등의 인문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西藏 지역 연구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이다.

## II.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西藏 자연환경의 독특성은 중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이다. 西藏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靑藏高原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경 78° 24′~99° 06′, 북위 26° 52′~36° 3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22만 km<sup>2</sup>로 전국의 약 12.8%로, 중국 전체로 보면 新疆自治區 다음으로 넓은 곳이다. 西藏의 지리적 위치는 동쪽으로는 四川省, 동남쪽으로는 雲南省, 북쪽으로는 新疆自治區, 동북으로는 靑海省, 남부와 서부로는 미얀마, 인도, 부탄, 네팔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 국가와의 국경선은 총 4000여 km에 이른다. <그림 1>에서 대체적인 西藏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그리고 자연환경과 주요 취락들을 지도로 나타내었다. 西藏은 1998년 현재, 6지구, 1지구급 시, 1현급시, 76현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구급 시는 자치구 행정 소재지인 拉薩이고, 현급시는 日喀則 지구의 日喀則시이다. 나머지 여섯 지구는 那曲, 昌都, 山南, 日喀則, 阿里, 林芝지구이다.

대체적인 자연환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내 평균 해발고도가 4000m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원 사이로 거대한 산맥들이 위치해 있고 이들 산맥의 산꼭, 하천 곡지

사이로 하천들이 횡단하고 있다. 중요한 산맥으로 북쪽으로는 쿤룬(昆侖), 남부의 히말라야, 서부의 喀喇崑崙, 동부의 橫斷山脈이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독특한 지형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산 사이로 흐르는 하천 중에 西藏에서 가장 중요한 雅魯藏布강이 <그림 1>에서 보듯 이러한 산맥들을 가로질러 서부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앙에 위치한 라사(拉薩)를 밑으로 흐르고 계속해서 林芝, 墨脫을 거쳐 인도로 빠져나간다. 비교적 좋은 경지가 부족한 西藏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양호한 雅魯藏布강을 중심으로 하곡 양안은 西藏의 중요한 취락들이 형성되어 있고, 인구나 각종 산업활동 역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후환경은, 서북부는 매우 춥고 건조하며, 동남부는 온난습윤하다. 동남에서 서북방향으로 아열대-온난대-온대-아한대-한대로 이어지고 이에 상응하여 습윤-반습윤-반건조-건조로 이어지고, 식물 피복 역시 삼림-관목-초원-황무지-사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조량은 풍부하고 복사열이 큰 편이다. 그러나 연평균 기온은 낮고 사계절이 불분명하며 주야간의 일교차가 크다. 특히 건조-습윤 계절의 구분이 명료하고 야간에 강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겨울과 봄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며, 기압이 낮고 산소가 적다. 삼림은 주로 동남부에 널리 분포하지만 지세가 험난하여 이용하기에 곤란하다.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관개가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사 이용 이외의 개발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고산호수의 수면 자원 역시 풍부하나 수온이 낮아 내수면 어업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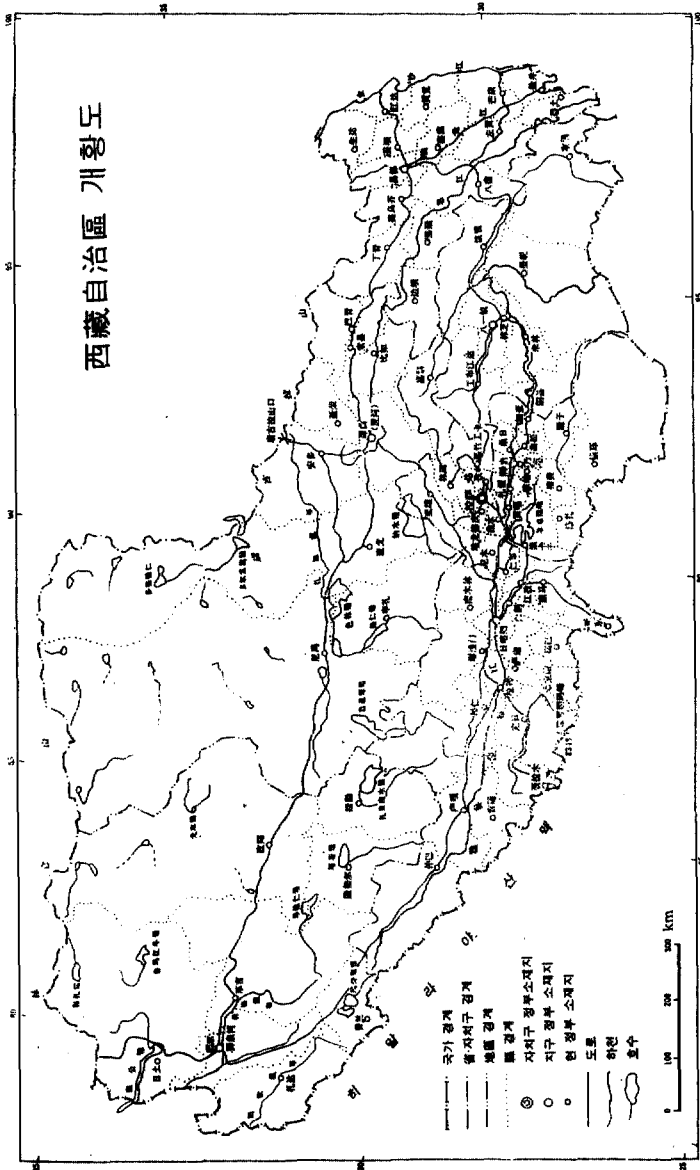
## 1. 자연환경

### 1.1. 지형

西藏 지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광활한 고원, 높은 산맥, 널리 분포되어 있는 호수, 종횡으로 교차하는 하천 등의 구조로 조합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 역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한데(<http://china-window.com/Area/Xizhang>), 첫째, 북쪽으로 널리 펼쳐져 있는 북부 고원 지대이다. 이곳은 昆侖山, 唐古拉山, 岡底斯山, 念青唐古拉山 등

그림 1. 西藏자치구 개황도



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전체면적의 5%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岡底斯山과 히말라야산의 가운데로, 즉 雅魯藏布강과 그 지류가 흐르는 곳인 남부 谷地 지대이다. 마지막으로 동쪽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서 방향으로부터 차츰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橫斷山脈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西藏 지역은 지질 역사상 여러 차례의 구조운동을 거친 것으로, 侏羅-백악기의 燕山運動을 거쳐 지형적인 기초가 형성되었다. 제4기 이후 강력한 지각의 수평운동으로 고원의 현대적 지형이 형성되었다. 현재 고원의 모든 지형은 서북에서 동남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남북으로 위도 약 8도 정도에 걸쳐 있다. 이러한 위도 차이에서 기인된 풍화 작용으로 인해 일정 정도로 지형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더욱 명확한 지형적 차이는 높은 고원에서 나타나는 수직지대 차이이다. 그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대는 고원 동남부와 남부 변경의 단층이다. 이러한 고원 지형의 발달은 지질학적 구조운동과 신 구조운동에 의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西藏 지형은 광활한 고원을 기초로 대체로 서북에서 동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형을 고도에 따라 두 계층으로 구분가능한데 그것은 해발 5000~5200m와 4400~5000m의 두 개 고원의 단층면이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고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산록으로 제3기 후기 이후 탈식과 분할로 이루어진 지역이고 후자는 비교적 뒤늦게 퇴적작용 위주로 조성된 지형이다. 이러한 두 계층 고원은 西藏 북부에 비교적 완전히 갖춰져 있다. 西藏 남부와 西藏 동부 지대는 雅魯藏布강과 金沙강 등 외부에서 유입된 수계의 침식으로 지형이 파괴되어 복잡한 형태로 침식-퇴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고원을 중심으로 한 주위는 고도가 높은 많은 산맥이 종횡으로 이어져 西藏 지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산맥의 분포 역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고원에 걸쳐있는 이러한 비교적 큰 산맥을 중심으로 古冰川 작용에 의한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빙천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빙천에 의한 용수가 長江, 黃河, 雅魯藏布江, 怒江, 瀾滄江, 印度河 등 주요 대하천의 원천이 된다.

고원 단층면 중간에는 많은 분지가 있고, 이러한 분지의 많은 부분에서 호소

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주로 西藏 북부 고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원호소 가운데 내부에서 발달한 호소는 대부분 구조 성인 위주로 형성되었고 소수가 빙천, 泥石流, 崩塌 등 비구조적 성인 위주로 형성된 호소다. 고원 단층면 이하에는 내부 혹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계가 서로 이어진다. 내부에서 시작된 수계는 대부분 고원 계곡을 따라 흐르고 西藏 북부 고원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고원 동, 남, 서부의 외부 지대에는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수계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수계를 이용한 수력을 통해, 극히 일부뿐이지만, 공업 및 농업이 가능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표 1> 西藏지역 지형 구분

지형지대 대분류	지형지대 중분류	지형지대 소분류
藏南 산지·호수·분지·곡지 지대	히말라야산지대	히말라야 극고산 지대
		히말라야 중저산 지대
	藏南 산지, 호수, 분지 지대	札達분지 지대
		噶爾藏布-馬泉河 분지 지대
		히말라야산 중단 호수분지 지대
		羊卓雍錯-哲高錯 고원 호수분지 지대
	拉軌郎日 고산 지대	
藏東南 산지 河谷 지대		
藏北 고원 호수분지 지대	南羌塘山 호수분지 지대	岡底斯-念青唐古拉 고산지대
		日土-革吉山 곡지대
		措勤-班戈山 호수분지 지대
		那曲山 분지 지대
	北羌塘山 호수분지 지대	喀喇崑崙山 호수분지 지대
		雅根錯山 구릉 호수분지 지대
	崑崙山 지대	唐古拉山 지대
		崑崙山 지대
可可西里 고원 호수분지 지대		
藏東 고산 하곡 지대	三江유역 고산 심곡 지대	三江 북부 하곡 지대
		三江 남부 하곡 지대

자료: 中國科學院青藏高原綜合科學考察隊, 1984, 『西藏地誌』.

지금까지 설명한 西藏의 지형을 분류 방식으로 구분하면, 크게 西藏 남부 산지·호수·분지·곡지 지구와 西藏 북부 고원 호수·분지지구, 西藏 동부 고산 하곡 지구의 3개 지형지대로 구분되고 그 이하로 8개의 지형구와 18개의 지형亞區로 나눌 수 있다(楊改河 等 編著, 1996).

## 1.2. 기후

西藏의 지형적 특징은 기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西藏 지형이 다른 곳에 비해 특징적이라는 사실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도 독특하게 나타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 특징으로는 우선, 위도가 대체로 비슷한 동부 長江 유역과 비교해 기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낮은 온도는 西藏 농목업 생산의 주요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토지, 에너지 기타 자연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주며 총체적으로 西藏 사회경제 발전의 제약요소이다.

둘째, 西藏 지역은 강수가 시기적으로 집중되며, 건조-습윤 계절이 분명하고 강수일수가 많으며 강수 강도가 약하고 야간에 비가 오는 비율이 높다. 靑藏고원은 4~9월이 작물과 목축의 주요 생장기인데 강수량이 주로 이 시기에 집중한다. 이 시기의 평균 강수량은 일년 전체의 88% 이상이며, 특히 라사(拉薩)는 97%에 달한다. 이것은 동부 長江 이남의 평원지구의 같은 시기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 강수량의 높은 집중으로 건조-습윤계절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西藏 기후의 큰 특징이다. 그러나 雅魯藏布강 하류와 히말라야산맥 남사면을 제외하고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다.

셋째, 일조가 충분하고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많은 편이다. 靑藏고원은 해발이 높아 공기가 희박하고 수분, 먼지 함량이 적어 태양에너지 복사가 다른 동부의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이는 농업에 유리한 기후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西藏의 기후는 내부적으로도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동남부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개 기후대와 4개 기후구로 구분할 수 있다. 즉 5개 기후대는 산지열대, 산지아열대, 고원온대, 고원아한대, 고원한대로 구분 가능하고, 4개 기후구는 습윤, 반습윤, 반건조, 건

조 기후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후는 앞서 설명한 지형 조건과 상호 관련될 뿐 아니라 西藏의 다른 자연환경, 예를 들어 수자원, 토양, 피복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지역차이에 의한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西藏 각 지역의 상이한 특색을 가진 토지의 개발 유형을 만들어 낸다. 그러한 예로서 히말라야산 남사면의 각 지대, 즉 墨脫과 察隅 남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삼림이 풍부하지만 개발이 곤란하고 경지가 적으며, 농작물은 일년에 2~3번 재배 가능하다. 재배 가능한 작물로는 차나무, 사탕수수 등 열대·아열대 경제림이 있다. 東部 三江유역은 토지 이용 현황이 지극히 복잡하다. 이 지역은 수직적 차이와 수평적 차이가 함께 나타난다. “一江兩河” 중부 유역지구는 지면이 평탄하고, 관개가 편리하며 토지가 비옥하다. 雅魯藏布강 중류와 하류 지구는 기후가 온난습윤하고 삼림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西藏에서 가장 개발전망이 유리한 입업지역이다. 강 하곡을 따라 과일과 밀 위주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西藏 동북 지대와 西藏 서북 지대는 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목축업 지역이다.

총괄적으로 보면, 西藏 기후 유형은 다양하고 토지유형은 복잡하다. 기후와 토양의 차이는 지대별 차이보다 고도 차이에 의한 수직적 변화가 큰 편이다. 태양 에너지와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해발고도에 높음에 따른 낮은 기온이 농업생산을 제한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식물 피복은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동남에서 서북으로 차츰 체감된다. 지형의 복잡함과 험난한 산지, 열악한 기후 등은 외부와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西藏 지역의 독특성, 폐쇄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2. 토지 이용

### 2.1. 西藏 토지이용의 특성

자연환경의 독특성은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에 따라 西藏 지역은 이용되지 않는 토지면적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되지 않는 토지면적은 약 1/3이며, 나머지 2/3는 농업·임업·목축업 용지이다. 그중 목초지 면적이 약 56.7%로 가장 많고, 경지면적은 극히 적어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하

다. 광공업·교통·주거용지는 0.05%로, 西藏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교통이 폐쇄되어 있으며 토지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 형태를 비교적 뚜렷이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西藏의 토지이용의 특징을 보면(孫尙志 主編, 1994), 첫째, 토지 조건이 복잡하고 이용 유형이 많다는 점이다. 西藏은 지역이 넓고, 지형·기후 조건이 복잡하기에 토지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둘째,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많다. 이는 西藏의 86% 토지가 해발고도 4000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岡底斯山-念青唐古拉山의 서쪽과 북쪽 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0℃ 이하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도 10℃ 미만이며, 일일 평균 기온이 0℃ 이상이 120일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서북부는 해발고도 5000미터 이상으로 기온은 극한대로, 연평균 기온이 -2℃ 이하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도 6℃ 이하이다. 여기에 강수량이 50mm 이하로 습윤계수가 0.25 이하로 극도로 건조하다. 반면 태양일수는 많아 수분증발이 심하다. 그 결과 생태 환경이 열악해져 이러한 지역 20여 만km<sup>2</sup>의 토지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당연히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기타 일부 고산의 암석과 경사지대 토지자원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체 면적의 31.8%가 이용되지 않는 토지이다. 西藏은 국토 이용률이 가장 낮은 성 가운데 하나이다.

<표 2> 西藏의 토지이용 현황

	西藏 自治區	拉薩市	山南 지구	日喀則 지구	林芝 지구	昌都 지구	那曲 지구	阿里 지구
경지	0.31	1.88	1.07	0.75	0.31	0.66	0.02	0.01
林地	6.27	3.44	11.85	1.21	38.95	27.38	0.56	0.00
목초지	56.72	71.75	61.57	69.58	25.31	51.74	52.74	61.91
水域	4.85	5.53	6.77	5.17	9.41	2.39	4.69	4.19
공업·교통· 주거용지	0.05	0.39	0.13	0.08	0.07	0.05	0.02	0.01
미이용	31.8	17.01	18.61	23.21	25.94	17.77	41.98	33.88
총면적 (km <sup>2</sup> )	1139373.9	29517.8	50239.7	181345.1	77804.2	108676.1	395458.0	296333.0

자료: 楊改河 等 編著, 1996, p.54.; 孫尙志 主編, 1994, p.53.

셋째, 자연조건에 의한 토지이용 제약이 크고, 지역차이가 현저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은 자연조건이 차이가 크기에 토지이용 구조와 토지이용 방식 차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난다.

대체로 동남에서 서북으로 삼림 면적이 체감한다. 중남부의 拉薩, 山南, 日喀則을 중심으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동남부의 林芝, 昌都 두 지역은 비교적 적고, 서북 지역의 那曲, 阿里지구는 극히 적다. 목초지 면적은 林芝 지구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 토지면적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극한기후의 那曲과 阿里는 이용되지 않는 토지면적이 매우 많고, 공업·교통·주민용지 비중이 매우 작다. 동남부는 열대·아열대 지대로 히말라야 산의 남사면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부터 넘어오는 온난 기류로 많은 강수가 발생한다. 북쪽 면은 산이 높아 차가운 공기를 차단한다. 그로 인해 삼림비중이 목초지에 비해 높다. 동부의 橫斷山 지대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수직적 변화가 명확하다. 이들 지대는 삼림 비중이 감소하고 목초지 비중이 증대하여 토지 이용 방식은 농·림·목이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중부 지구는 대부분 온대 반건조 기후로 초원식물 피복이 급속히 증가한다. 서북과 북부 지대는 기후가 매우 추워 식물 피복이 극히 제한되어 이용되지 않은 비중이 높다.

넷째, 농림업 용지의 경영이 조방적이고 효율이 낮은 편이다. 용지 가운데 농·림·목축업 용지 비중이 크지만 경제 수준이 낮아 기초 생산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기계화 수준이 낮고 노동력 부담이 크다. 각종 기계작업 면적은 파종면적의 25%에 불과하고 수리시설, 비료사용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목축업의 기초시설은 더욱 열악하여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에 의존한 목축업과 조방적인 경영이 이루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생산액은 낮다. 1989년 곡물 평균 생산은 1헥타에 123.2kg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118.9kg이나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 조건이 역시 열악한 新疆, 青海, 寧夏 지역들보다도 西藏은 더 낮은 것이다. 1989년 1헥타에 대한 평균 생산액은 78.5원, 순 생산액은 64.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대단히 낮다.

## 2.2. 토지 이용별 현황과 분포

### 2.2.1. 경지

경지는 3489.6 km<sup>2</sup>로 전체 총 토지면적의 0.3%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관개지는 73.3%이고, 평지, 경사지, 계단식 밭이 각각 47.7%, 22.2%, 30.1%로 경지도 부족하거나와 있는 경지도 좋은 조건의 경지가 되지 못한다.

경지는 주로 지형과 기후, 수량 조건의 제약을 받기에 뚜렷한 지역차이가 존재한다. 경지는 주로 해발 4100~4400 미터 이하의 하곡지대에 많이 분포하는데, 중남부의 一江兩河 중류지역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평지가 많고, 관개조건이 비교적 좋다. 동남부의 尼洋 하류와 三江 하류 지구는 경지가 비교적 적고, 지형인자의 영향으로 경지의 많은 부분이 경사지 혹은 계단식 밭이며, 관개가 되지 않는 경지 비중이 크다. 서북부의 那曲과 阿里 양 지역의 경지면적은 83.1km<sup>2</sup>에 불과하다.

<표 3> 西藏自治區 지구별 경지면적(만畝)

	총경지면적	논	관개지	밭	채소밭
拉薩	83.3	-	76.5	6.1	0.7
日喀則	203.3	-	170.7	32.5	0.1
山南	95.6	15.1	76.3	4.2	0.1
林芝	38.7	1.6	18.2	18.7	0.2
昌都	107.5	-	38.0	69.4	0.1
那曲	9.0	-	0.4	8.6	-
阿里	3.4	-	3.4	-	-
전체	540.8	16.7	383.5	139.5	1.2

자료: 孫尙志 主編, 1994, p.47.

이러한 각 지구의 경지는 그 내부 구조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동남에서 서북방향으로 즉 습윤한 지역부터 반습윤 반건조기후로 가면서 관개지의 비중이 차츰 증대한다. 다만 동부의 昌都, 那曲지구 동부는 밭의 비중이 60%를 초과한다. 阿里, 拉薩, 日喀則의 관개지 비중은 83%를 초과하여 비교적 양호하다.

경지의 차이로 인해서 경작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拉薩, 日喀則, 阿里, 山南의 전체와 林芝, 昌都의 북부는 일년일작으로 주로 밀, 청과, 완두를 재배하고, 昌都 남부의 해발 3200미터, 林芝의 3000미터 이하의 하곡은 경지 상태가 비교적 좋아, 청과·밀·메밀 혹은 밀·옥수수·메밀의 2년 3작이 이루어진다. 다만 비료 부족, 노동력 부족, 수리상태의 제약으로 현재 경작되는 면적은 2년 3작이 가능한 면적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察隅, 墨脫縣 등 남부의 해발고도 2200미터 이하의 하곡은 1년 2기작이 가능하다. 동 히말라야 산맥의 주 능선 이남은 열대, 아열대 지구로 수도작이 일년에 두 번이 가능하고 열대·아열대 경제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西藏의 전반적인 경지 이용은 조방적이고 농업기초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생산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생산이 낮은 농토를 개조하기도 하며, 농토의 방호림을 건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경작 방식을 바꾸어 두류, 유채, 녹비 작물의 파종면적을 확대하여 지력을 배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인자의 열악함은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2.2.2. 삼림과 목초지

삼림 면적은 71451.5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6.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有林地 면적이 55.7%, 灌木林地 41.8%, 疏木地 2.5%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西藏 동부의 林芝와 昌都 두 지역 삼림 면적이 전체의 84.1%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의 삼림 피복률은 32.2%에 이른다. 중남부의 拉薩, 山南, 日喀則 세 도시 삼림면적은 비교적 적어서, 전체 삼림 면적의 12.8%이고, 삼림 피복률은 3.5%로 西藏과 전국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那曲지구, 阿里지구 삼림 피복률은 극히 낮은, 삼림 자원 결핍 지역이다.

목초지 면적은 646232km<sup>2</sup>로 토지 면적의 56.7%에 이른다. 대다수가 천연초지로 전체의 99.98%이며 기타 개량초원, 인공초원은 극히 적다. 천연초지 중 여름가을 방목 초지, 겨울봄 방목 초지, 연중 방목 초지가 각각 57.4%, 18.5%, 13.5%로 구성되어 있다. 那曲, 阿里 양 지구가 전체의 60.7%로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 2.2.3. 수자원, 주거·광공업·교통용지

수자원 면적은 55279.7km<sup>2</sup>, 전체 토지면적의 4.8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 가운데 호수, 빙천 및 영구적설이 각각 46.5%와 44.6%, 河流수면이 3.4%, 기타 저수지 등이 0.1%이다. 주로 拉薩, 山南, 日喀則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주거용지, 광공업 용지, 교통용지, 특수 용지 등은 555.8km<sup>2</sup>이다. 동남, 서북 지역은 이들 용지의 비중이 적은데 이는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교통이 폐쇄되어 있는 지역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다. 중남부의 拉薩, 山南, 日喀則의 비생산성 용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 2.3.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구분

지역성 구명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석 도구가 지역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지역(region)은 행정단위처럼 경계를 그을 수 있는 등질지역과 시장권처럼 그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구분은 전체 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본질적인 지역 이해가 아닌 각 하부 지역들의 상호 관계, 이질성 등의 이해를 통해 전체적인 지역, 즉 西藏 지역 전체를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구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토지에 대한 이해는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구분은 자연조건, 행정구역, 토지이용 현황, 사회경제 수준 등의 내부적 유사성과 외부적 이질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근거하여 西藏 지역은 크게 세 지대, 즉 동남부, 중남부, 서북부로 구분 가능하다.

### 2.3.1. 동남부 지대

이 지대는 靑藏고원 동남부로 昌都, 林芝 소속의 18개 현으로 전체 면적의 16.4%에 해당된다. 남부는 察隅, 동 히말라야 남사면으로, 기후는 산지열대, 아열대 습윤 기후에 해당되고, 북부는 고원 온대습윤·반습윤기후로 西藏 전체에서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지대는 해발고도가 일반적으로 2700~4200m 정도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하천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어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농업에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이 지대는 삼림면적이 제일 많아 전체 토지면적의 36.8%이고 전체 삼림 면적의 81.5%를 차지한다. 목축업 면적은 西藏 전체 목축업 면적의 11.0%이며 이 지대 토지면적의 36.4%로 삼림면적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목축업 용지는 낮은 온도와 침식지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용지는 전 토지면적의 0.7%, 그리고 西藏 전체 농지면적의 29.9%이다. 그러나 비교적 질이 나쁜 3, 4등급 토지가 주로 전체의 53.9%에 이른다. 경지이용 현황으로 보면 경사지가 46.5%, 계단식 밭이 44.1%이고 평지는 9.4%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경사도 25도가 넘는 경사지와 계단식 밭이 전체 경지의 12.5%로 비교적 이 지역은 경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 2.3.2. 중남부 지대

靑藏고원 중남부 지대로 “一江兩河” 중부 유역과 雅魯藏布강 남부 유역을 포괄하고, 행정구역으로는 拉薩, 山南, 日喀則의 38개 현을 관할한다. 雅魯藏布강은 서에서 동으로 이 지역 중부를 횡단하는데 그 주 하도와 拉薩河, 年楚河 등 지류의 곡지는 해발 4100~3500미터 정도이고 이들 하천 양안에는 평탄하고 넓은 하천부지, 충적단구, 선상지 등의 지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양이 발달되어 있다. 이 지대의 면적은 전체의 22.9%에 해당된다.

“一江兩河” 중부유역의 기후는 고원 반건조에 속하며, 연평균 강수량 300~500mm, 연평균 상대습도는 50% 이하이고,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계로 전체 강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일년 중 건조-습윤 기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연평균 기온은 일반적으로 2.4℃~8.3℃ 정도이다. 이 지역 남부 즉 雅魯藏布강 남쪽 유역은 고원아한대 반건조 기후로, 히말라야 산이 가로막고 있어 강수가 비교적 적어 일반적으로 240~380mm에 불과하고, 연평균 기온은 1~3℃이다.

농지면적은 3004.3km<sup>2</sup>로 西藏 전체 농지의 67.7%이고 이 지역 토지면적의 1.2%이다. 농지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으나, 西藏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높다. 농지도 비교적 질이 좋은 1, 2등급 농지

면적이 많아 전체 농지의 24.5%를 차지한다. 목축업 용지는 이 지역 토지면적의 65.8%로 목축업이 이 지역의 중요한 지위임을 보여주며, 西藏 전체 목축업 면적의 27.9%를 차지한다. 삼림면적은 西藏 전체 삼림 면적의 13.3%이다.

### 2.3.3. 서북부 지대

이 지대는 阿里지구와 那曲지구의 18개 현으로 西藏 전체 면적의 60.7%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대이다. 기후는 동에서 서로 가면서 고원 아한대 습윤기후, 고원 아한대 반습윤 기후, 고원 아한대 반건조기후, 고원아한대 건조기후, 고원 온대 건조기후로 이어지고, 서북부의 고원한대 건조기후에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다. 극한의 기후조건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연평균 기온이 0℃ 이하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한랭조건에서는 임목, 작물의 생육이 불가능하고, 토지의 많은 부분이 천연초원으로 이용될 뿐이다. 다만 那曲 동부 협곡과 阿里 서부 일부에서만 농업이 이루어진다.

목축업 용지는 이 지역 총 토지면적의 54.2%이고 西藏 전체 목축업 용지의 61%이다. 농업용 토지는 극히 적은데, 주로 那曲동부 협곡과 阿里 서남부 하곡 지대에 분포한다. 이렇게 농업토지가 적은 것은 이 지역이 건조, 반건조한 초원 지대와 황야·사막이 전개되어 있다는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표 4> 西藏 자치구 지대별 토지 이용 구성현황

유형	西藏자치구 전체 (km <sup>2</sup> , %)	토지 자원 지대별(%)		
		중남부	동남부	서북부
총면적(km <sup>2</sup> )	1139373.9	261102.6	186480.3	691791.0
경지	3489.6 (0.3)	70.1	27.5	2.4
林地	71451.5 (6.3)	12.8	84.1	3.1
목초지	646232.0 (56.7)	27.6	11.7	60.7
水域	55279.7 (4.9)	26.1	17.9	56.0
공업·교통·주거	555.8 (0.05)	60.9	21.5	17.6
미이용	362365.3 (31.8)	15.6	10.9	73.5

자료: 楊改河 等 編著, 1996, p.69에 기초하여 재작성.

이상에서 보듯 西藏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정주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하다. 지형구조나 기후, 그리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도 모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인문적 요소인 인구와 취락 역시 이러한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문 환경으로서의 인구와 취락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인구 및 취락의 구조와 분포

#### 1. 인구 구조와 분포

##### 1.1. 인구성장

西藏은 1952년의 115만 명의 인구에서 1993년 현재는 22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西藏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인구성장 형태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西藏 지역의 인구에 관한 정확한 조사는 없지만<sup>2)</sup>, 지금까지 나타난 공식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西藏 지역은 낮은 인구 성장률과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성장이 특징이다.

西藏은 1952년에서 1993년간에 연평균 1.69%의 인구증가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성장률이 약 1.78%임을 감안하면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성장을 나타냈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성장의 차이는 西藏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어있다. <표 5>와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인구의 성장이 느린 1962, 1981, 1990년과 반대로 2.0%를 넘긴 1960, 1961, 1970~73, 1979, 1987~88년 등은 대부분 사회적 인구이동, 즉 西藏 외부에서 들어온 간부, 직공과 그 가족들의 유입과 이출에 기인한 것이 크다. 물론 최근 들어 의료수준의 개선으로 출생률 증가에 기인한 시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2) 중국 전체로는 현재까지 네 번의 인구센서스 조사가 있었으나 西藏은 1982년이 최초의 조사였고, 그것도 다른 곳에 비해 항목은 절반이었으며 일부 인구와 행정기록에 의한 추정치였다. 1990년에 시행된 제4차 인구센서스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실상의 처음 조사이다(馬 戎, 1996, p.230).

&lt;표 5&gt; 西藏自治區 인구 추이(1952~1993년, 만 명)

연도	연말 총인구	인구증감			연도	연말 총인구	인구증감		
		증감	자연 증감	인구 이동			증감	자연 증감	인구 이동
1952	115.00	-			1976	172.40	3.29	2.43	0.86
1959	122.80	-			1978	178.82	3.20	2.50	0.70
1960	126.98	4.18			1980	185.28	2.59	2.42	0.17
1962	130.17	0.30			1982	189.25	3.29	3.15	0.14
1964	134.67	2.29			1984	196.68	3.54	3.11	0.43
1966	139.67	2.55	1.19	1.36	1986	202.49	3.01	3.24	-0.23
1968	145.16	2.75	1.11	1.64	1988	212.31	4.36	3.15	1.21
1970	151.20	3.15	2.26	0.89	1990	218.05	2.14	3.30	-1.16
1972	159.28	3.90	2.47	1.43	1992	225.27	3.48	3.35	0.13
1974	166.12	3.20	2.54	0.66	1993	228.28	3.01	3.20	-0.19

자료: 西藏自治區統計局, 『西藏統計年鑒』(1993-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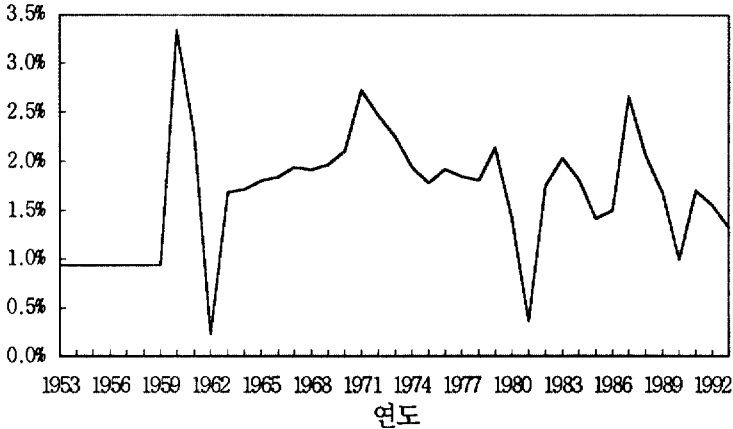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증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시기를 세 단계, 즉 1952~1964년, 1965~1979년, 1980~1993년 시기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자치구로 성립한 1965년과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접어든 1980년을 기점으로 나눈 것이다.

첫 시기인 1952~1964년 시기는, 자치구가 성립되기 전으로 인구성장이 비교적 느리다. 12년간 연 평균 1.32%의 인구성장을 나타내었다.

특히 1959년까지는 연평균 0.94%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중앙정부의 세력이 확대된 1959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1960년을 전후로 인구성장의 양극적 현상이 발생했다. 1960년에는 4.18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연 3.40%의 성장률을 보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의한 것보다는 西藏 외부의 각 省에서 선발하여 배치한 간부, 기술인력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西藏으로 들어온 점과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들어온 간부, 직공들이 청년위주로 막 결혼연령에 있어서 西藏에서 결혼하여 출생률을 높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른바 1959년 “민주개혁”으로 인한 西藏 현지의 많은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외부 인력의 유입이 큰 원인이었다.

그림 2. 西藏自治區 인구증가율 추이(1952-1993)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962년의 돌연한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나타나 0.3만 명 증가에 그쳐, 역대 최소의 인구증가로 기록되었다. 이 역시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가 곤란한 시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西藏의 각 기업, 국가기관, 단위 들을 간소화하여 간부, 직공 가족들을 원래 소속된 곳으로 돌려보낸 것에 기인한다.

다음 시기는 1965~1979년으로 西藏에서 인구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에 속한다. 이 과정은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西藏 지원과 무료 의료의 전반적 시행으로 인한 사망률의 저하에 기인하였다. 이 시기의 인구성장에도 역시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1993년 기간은 평균 1.6%의 인구성장을 보인 시기이다. 이 시기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1980, 1981년의 인구 성장속도의 감소인데, 이는 인구이동 -2.26만 명과 관련되어 있다. 개혁으로 인한 외부 지향적 인구이동과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인구이동이 혼합된 결과이다. 1980년대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1983년 2.0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1984년 다시 감소하고 1986년에 회복되었다가 1988~90년

에는 급속히 하락되었으며, 1990~91년 다시 상승하고 1992~93년 다시 하강하였다. 이는 아직도 西藏 지역이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1.2. 인구 분포

西藏은 중국 전체 토지의 약 1/8을 포괄하고 있지만, 인구는 1993년 현재 228만 명으로 전체의 0.19%로 성·시·자치구 중 가장 적다. 인구밀도도 1.8명/㎢으로 역시 가장 적다.

### 1.2.1. 지역별 인구분포

행정 지역별 인구분포는 <표 6>에서 나타나 있다. 7개 지구 가운데 日喀則 지구가 25.5%로 가장 많고 阿里지구는 전체의 2.9%로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지구의 인구수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들간의 변화와 차이는 거의 없다. 西藏 지역의 성격상 자연환경적 조건이 인구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다는 것이 지역적인 인구분포의 특성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

<표 6> 西藏 각 지역 인구분포 추이(1982~1993, %)

연 도	1982	1986	1988	1990	1993
인구(만 명)	189.24	202.49	212.31	218.05	228.88
拉薩	16.56	16.19	16.48	16.354	16.28
山南	12.97	13.07	13.08	12.98	12.94
日喀則	24.62	25.12	25.19	25.40	25.47
林芝	6.68	6.31	6.06	5.92	5.95
昌都	23.49	23.23	22.97	22.80	22.65
那曲	13.54	13.35	13.47	13.74	13.85
阿里	2.64	2.73	2.76	2.81	2.86

자료: 1982년 『西藏自治區第四次人口普查手工匯總資料』,  
1986~1993년, 『西藏統計年鑒』(1994년)

인구분포를 縣 단위로 세분하여 보면, 인구 1만 미만이 6개 縣, 1~2만 縣이 20개로 주로 히말라야 산록의 변경과 서북에서 농목축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縣이다. 또한 2~4만 명 수준의 縣이 29개로 거의가 靑藏公路와 拉孜縣 동쪽의 넓은 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4만 명 이상의 縣은 18개로 주로 雅魯藏布강 유역과 동부 三江유역 근처에 있는 縣들이다. 높은 고도로 표현되는 西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인구는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 1.2.2. 인구밀도

자연환경에 따른 인구밀도의 지역차이가 뚜렷한 편이다. 이 역시 자연환경의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 대체적인 경향은 라사(拉薩)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차츰 감소하고 동부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拉薩市, 山南地區, 日喀則地區 38개 縣은 토지면적 비중은 22.9%에 인구비중은 54.7%로 인구밀도는 4.8명으로 西藏 전체 인구밀도의 2.4배에 달한다. 그 가운데 특히 라사(拉薩)는 토지면적 2.6%, 인구 16.3%, 인구밀도 12.6명으로 최대이다. 동남부는 토지면적 16.4%, 인구 28.6%, 인구밀도 3.5명이고, 서북부는 토지면적이 60.7%이나 인구는 16.7%, 인구밀도 0.55명으로 인구 희소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북부의 20여만 km<sup>2</sup> 지역은 전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표 7> 西藏 각 지역 인구밀도(1993년)

지 구		縣 수	면적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밀도(명/km <sup>2</sup> )
중남부	拉薩	8	2.6	16.3	12.60
	山南	12	4.4	12.9	5.90
	日喀則	18	15.9	25.5	3.30
	합	38	22.9	54.7	4.80
동남부	林芝	7	6.8	6.0	1.71
	昌都	11	9.5	22.7	4.80
	합	18	16.4	28.6	0.80
서북부	那曲	10	34.7	13.9	0.80
	阿里	7	26.0	2.9	0.22
	합	17	60.7	16.7	0.55
西藏自治區		73	113.94만km <sup>2</sup> (100%)	228.88만명 (100%)	2.01

자료 1) 면적자료: 『西藏土地資源調查數據集』

2) 인구자료: 『西藏統計年鑒』(1994년)

## 1.2.3. 도농별 인구분포

절대다수의 인구가 주로 향촌(농촌)에 분포하고 있지만, 城鎮(도시) 인구의 성장도 비교적 빠르다. 1965~1993년 사이 8.1%~16.5%의 인구가 城鎮에 분포하고 83.5%~91.9%는 향촌에 분포하였다. 도시의 성장이 다른 곳보다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도시인구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65~93년간 도시 인구는 248.1%가 증가하였고, 반면 향촌 인구는 54.3% 증가하였을 뿐이다.

&lt;표 8&gt; 西藏 도농 인구분포(%)

연도	市鎮 인구	鄉村 인구
1965	8.1	91.9
1981	9.8	90.2
1985	10.3	89.7
1989	16.7	83.3
1991	16.3	83.7
1993	16.5	83.5

자료: 1981-1993년: 『西藏統計年鑒』(1994年),  
1965년: 『中國人口-西藏分冊』, 1989, 中國財政出版社.

## 2. 취락 체계와 공간구조

## 2.1. 도시화의 특징

앞서 살펴본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취락의 입지는 대체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인구분포의 영향이다. 예를 들어 西藏의 지구급 市인 拉薩, 日喀則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達賴), 班禪이 거주하는 곳인 종교 중심지이자 행정 중심지로 西藏의 중요한 두 도시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 集鎮들은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지방의 행정, 교역, 종교 사무 방면의 연계 역할을 한다.

신중국 이전에는 拉薩, 日喀則과 나머지 각 鎮의 성진체계에서 현재 拉薩 - 지구 중심지(日喀則 포함) - 각 鎮으로 이어지는 3계층 체계로 변화하였다. 즉 日喀則이 拉薩에 비해 그 중요성이 차츰 줄어들었다. 한편 西藏의 행정 체계는, 과거 噶廈 정부 통치 시기에는 噶廈 - 基巧 - 宗 체계로 유지되다가 1959년 이

후 중앙정부 체제에 따라 5단계 체제로 만들게 되었다. 즉 自治區(省) - 地區 - 縣 - 區 - 鄉으로 바뀌었다. 1987년에는 “區를 없애고 鄉에 병합”(撤區并鄉)하는 방법을 통해 중앙정부 체제와 완전 일치하게 된다. 1988년에는 鎮이 크게 늘어나 일년 사이에 建制鎮이 拉薩, 日喀則을 제외하고도 9개에서 31개로 증가하였다.

西藏 도시화의 특징으로, 馬戎(1996)은 각 지역 중심지 인구의 증가, 전국 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도시화, 대량의 비농업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점, 그리고 임시거주자와 유동인구의 증가라고 하였다.

지역 중심지 인구증가의 예로 那曲鎮을 들 수 있다. 이 곳은 那曲지구의 중심지로 靑藏公路의 적환지에 입지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1990년의 비농업 인구가 1.6만으로 日喀則시에 근접하였다. 八一鎮과 澤當鎮 역시 각각 林芝, 山南 지구의 중심지로 비농업 인구가 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西藏 도시화의 또 다른 특징은 비록 역사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근년 들어 도시 인구 발전이 비교적 빠르지만 여전히 전국 도시인구의 성장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964~1982년까지 西藏 도시 인구는 52.6% 증가했으나 이 기간 전국 도시(성진) 인구는 62.5% 증가하였다.

셋째, 비농업 인구의 많은 수가 市·鎮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0년 西藏 전체 비농업 인구는 30만 명인데, 市·鎮에 거주하는 인구는 18.9만으로 약 40%의 비농업 인구가 향촌에 거주한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원인이거나 아니면 비농업 인구들이 향촌에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된 西藏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넷째, 최근 들어 市·鎮내에 임시거주인구(暫住人口)와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자치국공안청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1985년 6월 拉薩시 잠주인구는 6만으로 전체시의 상주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다른 西藏 이외의 도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인데, 이러한 잠주인구와 유동인구는 주로 서장 외부에서 온 좌판, 수예인(handicraftsman) 건설 노동자, 그리고 종교적 목적으로 온 예불객들이다.

## 2.2. 西藏 취락의 형성과 발전

西藏 최초의 왕실은 현재 山南의 雅魯 하곡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손첸캄포(松贊干布)에 의해 西藏이 통일된 후, 자연조건이 비교적 좋고 전략적으로 요지인 拉薩에 王都를 건립하여 633년으로 拉薩로 천도하게 된다. 지역경제적으로 라사(拉薩)는 당시 농목업 지대의 중심지로 상품 집산과 교환의 이상적인 장소였다. 이러한 입지적 이점으로 吐蕃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松贊干布 이후 비교적 장기간의 안정시기를 겪어 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르게 되고, 또한 불교가 신속히 전파되어 공고화되는 시기에 이르자 사찰이 각 지방에 계속 출현하게 되고 정교 세력이 융합되어 사찰의 정치경제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유명한 사찰이 지역 중심지에 생겨서 종교 도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西藏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정체되어 취락의 발전 역시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나마 존재하는 대부분의 취락들은 비교적 큰 사찰 취락의 기초에서 발전된 것들이었다. 해방 초에도 행정중심 위주의 소수 몇 개의 도시가 있었을 뿐인데, 예를 들어 拉薩, 日喀則, 昌都, 澤當, 江孜, 那曲, 商埠 亞東 등이었다.

西藏의 현대적 도시의 출현은 1959년의 이른바 “민주개혁” 이후에 발생하였다. 2, 3차 산업이 도입되고, 이전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조하려는 중앙 정부의 의도에 따라 도시의 형태가 새로이 바뀌어 갔다. 그래서 원래의 소수민족 수공업이 방직, 전력, 건축재료, 기계, 농부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해방 전 西藏은 拉薩市 하나와 日喀則, 昌都, 澤當, 江孜, 那曲 5개 진이 존재하였다. 拉薩 인구가 1만을 초과하고 기타 鎮들은 3000명 내외였다. 1952년 西藏 비농업 인구는 7만 명(6.1%)에 불과하였다. 1988년 2개시에 9개 진, 1990년에는 2개 시, 31개 건제진, 1998년 현재는 6개 지구, 1개 지구급 시(拉薩), 1개 현급시(日喀則), 76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고차의 도시는 拉薩와 日喀則 市이다. 拉薩는 12만 인구의 소도시이지만, 지리적 위치와 독특한 문화적 전통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다. 日喀則은 西藏 남부의 지역 중심지로 역시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1986년 이전 日喀則鎮 인구는 2.5만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현에서 市로 바뀐 후 행정구역의 확대로 인구가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실제적인 시 지역 인구는 3만 명 내외이다.

다음 계층은 각 지구 행정 기관이 위치한 鎮이다. 예를 들어, 八一鎮, 昌都鎮, 澤當鎮, 那曲鎮, 獅泉河鎮들로 대부분 이들 鎮은 인구규모가 1.5만~2.5만 수준이다. 이들 城鎮들은 상위 취락 계층과 하위 계층을 잇는 기능을 한다. 가장 하위 계층은 신흥 小城鎮으로 인구는 1만 명 이하로 江孜, 札木, 姐德秀, 下司馬, 帕里鎮 들이다. 이들 鎮은 현지 상품의 집산지로 주위 지역에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이후 새로 인준된 鎮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들 鎮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5000명 이하로 매우 적고 농업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 규모의 城鎮은 西藏 취락 체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으로, 대체로 농촌과 비슷한 형태로 농목축업 종사자들의 활동 장소이면서 주위보다는 비교적 큰 중심지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西藏의 취락체계는 세 계층, 즉 첫째, 拉薩, 둘째, 日喀則市, 八一鎮, 昌都鎮, 澤當鎮, 那曲鎮, 獅泉河鎮, 셋째, 기타 여러 신흥 小城鎮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취락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

취락의 지역 분포는 西藏의 자연환경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 앞의 <그림 1>의 지도에서 뚜렷이 나타나듯 많은 취락들이 주로 남부 雅魯藏布강 중류의 양안에 위치해 있다. 면적으로는 전체의 1/3 미만 토지에 82%의 도시와 87.5%의 도시인구가 존재한다. 넓은 북부 지구는 56%의 토지에 도시 수는 6.7%, 인구는 5.5%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락 및 인구의 분포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경제적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즉 북위 30도 이북은 목축업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구로 넓은 땅에 인구는 적고, 도시는 매우 적다. 남부는 농업지대로서 비교적 도시가 많을 뿐 아니라 규모도 크다.

현재 취락들은 주로 최근 들어 발달한 것들이 많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고착된 취락들이 아니어서 명확한 기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비교적 도시 기능이 완전히 갖춰진 중심도시가 있다. 이 유형은 현재 拉薩市 하나이다. 자치구의 수도로서의 행정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탁

월하고, 역사적으로 비교적 장구하고 각종 공업부문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물자의 집산지이다. 문화적으로도 종교 중심이면서 藏族의 성지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중심 위주의 종합적 성격의 도시이다. 이에는 日喀則 지구의 日喀則市와 기타 각 지구에 설치된 鎮, 예를 들어 昌都鎮, 澤當鎮, 那曲鎮, 獅泉河鎮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일부 縣 정부기관 소재지 鎮인 曲水, 拉孜 등도 같은 성격의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들은 縣의 경제·문화·교통 중심으로 배후지 면적이 비교적 넓고, 도시 서비스 기능이 종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들 도시들도 지리적 위치, 자연조건에 따라서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昌都是 자동차 수리와 축산품 가공공업이 비교적 많고, 澤當鎮은 농산물 부산품 가공과 채굴업, 獅泉河鎮은 소량의 변경교역이 이루어진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공업·수공업 도시인데, 이 유형은 그리 많지 않다. 신흥 공업 도시로는 八一鎮과 전통 수공업으로는 江孜鎮이 있다. 넷째, 변경무역을 하는 소도시들이다. 이 유형의 취약 출현은 비교적 늦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빠르다. 주로 히말라야산 남사면의 국경선, 즉 亞東縣의 下司馬鎮, 聶拉木縣의 樟木鎮과 普蘭, 吉隆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농촌에 산재한 소도시들이다. 이들 소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규모와 기초시설이 부족하고 경관 역시 여전히 농촌취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인구는 여전히 농목업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기능적으로는 아직 도시로 볼 수 없지만, 농촌 최고중심지로서 작용한다.

#### 2.4. 西藏 취락체계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취락 체계에서 보이듯 西藏 전체적으로 주로 두 도시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나머지 취락계층은 인구나 기능적인 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각 지구의 중심지 취락들도 아직은 취락의 기능인 서비스 기능의 배후지 파급능력에서 한계를 가진다. 결국 이러한 취약한 취락 체계는 경제발전 수준이 지체되어 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그것은 다시 西藏의 인구가 회소하고 자연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별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서만 일정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대·중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小城鎮의 절대적인 수적 우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차 취락 계층이 충분히 형성될 만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취락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기초 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내부적인 구조 역시 2, 3차 산업 비중이 낮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西藏 취락체계의 이러한 특수성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앞으로 단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특히 이 지역은 2, 3차 산업의 진작을 통한 취락계층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라사(拉薩)는 종교적 이유나 관광 목적에 의한 도시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기타 나머지 취락의 성장은 대단히 제한되면서 진행될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西藏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西藏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인구나 취락체계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지리적 특성은 전체 지역 사회 이해의 밑그림으로 작용한다. 西藏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특징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리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자연환경이 인간 정주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은 더욱 강렬하게 작용한다.

西藏의 자연환경의 특징은 한마디로 인간주거환경에 극도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높은 고도에 위치해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으로 구성된 지형 자체는 西藏의 기본적 생활환경이다. 이를 토대로 전개된 西藏의 문화적 전통은 다른 문화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후 역시 지형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낮은 온도와 시기적인 강수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기후 지대가 나타난다. 이에 따른 토지 이용도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고도차이에 따른 수직적 차이가 토지이용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지만 이용 가능한 토지가 적어 토지이용률은 극히 낮고 경지 또한 극히 적다.

자연환경은 인구구조와 취락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연환경의 척박함으로 인해 西藏은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지역적 분포 역시 자연조건에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西藏의 인구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인구가동이 비교적 많았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정부에 편입된 과정이나 종교적, 정치적 갈등 등의 원인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西藏 인구의 성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인구분포에 따른 취락의 발달은 극히 저조하다. 취락의 발달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접근성, 외부와의 교류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대외적인 고립으로 나타나는 접근성의 취약과 자체 인구의 제한적 성장은 고차 취락의 순조로운 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拉薩와 日喀則을 중심으로 한 宗主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취락의 계층들의 발전은 상당히 취약하다.

위와 같은 지리적 특성은 객관적으로는 인간 정주에 상당히 불리하다. 하지만 西藏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藏族의 생활터전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성 구명이라는 지역연구의 목적에는 외부자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라는 점과 더불어 내부자의 시각에 의한 지역 구조의 이해도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열악한 자연환경과 취약한 인구·취락 구조 자체는 다시 말하면 가장 잘 적응된 西藏의 지역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西藏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본 논문의 한계는 이러한 특성들과 제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상호관계 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 이해 혹은 지역성 구명은 어느 한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그 동안 취약하게 다루어져 왔던 西藏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의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跨世紀的中國人口 編委會編著, 1994, 『跨世紀的中國人口 - 西藏卷』, 中國統計出版社.
-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西藏自治區人口普查辦公室, 1992, 『當代中國西藏人口』, 中國藏學出版社.
- 多杰才旦·江村羅布 主編, 1995, 『西藏經濟簡史』, 中國藏學出版社.
- 馬 戎 著, 1996, 『西藏的人口與社會』, 同心出版社.
- 孫尙志 主編, 1994, 『西藏自治區經濟地理』, 新華出版社.
- 孫勇主 編, 1991, 『西藏: 非典型二元結構下的發展改革-新視覺討論與報告』, 中國藏學出版社.
- 楊改河 等 編著, 1996, 『西藏土地資源生產能力及人口承載量研究』, 西藏人民出版社.
- 俞允貴 等著, 1994, 『西藏產業論』, 中國藏學出版社.
- 張小平 主編, 1997, 『走向二十一世紀的西藏』, 中國藏學出版社.
- 張榮祖 等, 1982, 『西藏自然地理』, 科學出版社.
- 赤列曲札, 1982, 『西藏風土志』, 西藏人民出版社.
- 程 鴻 等, 1984, 『西藏農業地理』, 科學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民政部 編, 1998, 『行政區劃簡冊』, 中國地圖出版社.
- 陳慶英, 1995, 『藏族部落制度研究』, 中國藏學出版社.
- 向 揚 等著, 1986, 『西藏國土資源』, 西藏人民出版社.

<http://china-window.com/Area/Xizhang>

<http://www.tibet.com>